

##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의 의미구조 분석

김석항\*·박민주\*\*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친할머니 김정숙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때 한반도 어디서나 평범한 여성 이름이던 김정숙이라는 호칭이 분단 이후 북녘 땅에서 유독 특별한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인가? 이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자는 1956년 이후 2017년까지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이 나오는 사례를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전수 조사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되짚어 보면 북한 최고 권력자 현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둘째, 북한당국은 김정일 집권 기간 김정숙에게 명예남성 지위를 부여하려 했다. 셋째, 김정숙 표상을 통해 북한당국이 선전한 시대적 여성상은 공산주의 투사에서 항일의 영웅으로 변화해왔다. 넷째, 북한당국은 필요에 따라 김정숙 표상을 활용하여 여성을 설득하고 통제하고자 했다. 다섯째,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지위에 오른 2012년 이후 김정숙 출생 100주년인 2017년까지 북한당국이 김정숙의 위치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김정숙 우상화, 김정숙의 이름, 김정숙 출생 100주년, 김정숙의 명예남성 지위, 『조선녀성』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친할머니 김정숙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정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져 온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의 유일한 여성으로 특유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 남성이 3대를 세습하는 동안 여성은 오직 김정숙 혼자 그 상징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북한당국은 김정숙을 남편 김일성 및 아들 김정일과 묶어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 반열에 올려놓았다.<sup>1)</sup> 김정숙이 “백두산 3대장군” 반열에 오른 이유를 설명하며 북한당국은 그녀가 남편인 김일성을 “몸 가까이 모셨고 자신의 한 생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아들 김정일을 “위대한 혁명의 지도자로 키워낸” 어머니의 삶을 보여준 인물로 모든 여성이 마땅히 “따라 배워야” 할 여성상의 전형이라고 강조해 왔다. 오늘날 북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여맹<sup>2)</sup> 및 생활총화<sup>3)</sup> 회의에 참석한 여성들 모두 김정숙이 빨치산 활동을 하던 시절, 추운 겨울에

- 
- 1) 백두산 3대장군이라는 용어는 북한당국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을 함께 일컫는 명칭이다. 이들을 3대장군으로 호명하는 관습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대 계급에서도 장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우리말 표기원칙의 중요한 기준인 두음법칙은 일제치하인 1933년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등장한다. 그러다가 분단 초기 북한당국은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이에 따라 오늘날 북한당국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이나 녀맹, 가두녀성 등 두음법칙을 무시한 표기방식을 추종한다. 이 글에서는 분단 이후 두음법칙 사용 금지를 결의한 북한식 표기방식을 따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고유명사나 직접인용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북한식 표기방식을 존중하여 그대로 제시한다.
  - 3) 북한에서 가두여성으로 부르는 전업주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여맹에 가맹하고 회의와 생활총화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생활을 수행해야 한다.

김일성 신발을 가슴에 품어 발이 시리지 않게 내놓고 길게 자랐던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을 만들어 바치는가 하면 남편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려고 펄펄 끓는 국수를 이고 나르다 앞머리를 태웠다는 “아름다운 소행”을 배우고 익히며 이 내용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어머님을 따라” 더 모범적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사회적 의례를 거치면서 살아간다.

사실 분단 직후에는 북한지역 어느 곳에서도 김정숙 이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이 없었다. 당시 여자아이가 출생했을 때 이름을 정숙으로 짓는 것은 북한지역을 넘어 한반도 어느 지역이나 흔한 일이었다. 자신의 딸이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것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은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한반도 곳곳에 수많은 김정숙과 박정숙, 최정숙, 이정숙 등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사회에서 김정숙의 이름은 범접할 수 없는 상징의 하나로 굳어졌다. 이처럼 예전과 달라진 오늘의 현실은 결국 분단 이후 2019년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북한 내부에서 흔하던 자연인의 이름 김정숙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상징으로 만들었던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분단 이후 북한사회에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북한당국이 바람직한 여성의 전형으로 김정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실은 어떤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해야 하는가? 북한당국은 언제, 어떤 호칭과 수식어로 김정숙을 호명하는가? 김정숙을 북한 내 모든 여성이 마땅히 따라 배워야 할 “숭고한 모범” 전형으로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김일성 가계의 다른 여인과 달리 김정숙이 여성으로 유일하게 “백두산 3대장군” 반열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사회에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상징성

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김정숙의 이름을 동원함으로써 북한당국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글에서는 평범하고 흔한 여성의 이름이었던 김정숙이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시대별 현황을 추적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 작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연구자는 현실적으로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선녀성』 기사 제목을 전수조사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일부 결호를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 1956년 이후 2017년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간이나 격월간 형태로 발간해 온 『조선녀성』 특집과 개별 기사 제목에 김정숙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사례를 최대한 정리하여 목차를 만들었다.

이 목차를 분석대상 자료로 삼아 북한 전역에 김정숙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등장하는 배경에 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교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대상 자료를 검토한 살펴본 결과,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이 자료에는 1980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김정숙 이름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풍조가 드러난다. 당시 북한당국은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를 치르면서<sup>4)</sup> 김정일을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공개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이름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뚜렷해졌다. 시간이 지나며 북한 내부에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김일

---

4) 1980년에 열린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는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대회는 열리지 않다가 김정일 사후 3대세습으로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은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해 놓은 시점이었던 2016년에 이르러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성의 첫 번째 아내이며 김정일의 생모로 40세도 안 된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여성을 특징하는 용어로 굳어지는 흐름이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그대로 나타난다.

둘째, 김정숙의 이름을 꾸미는 수식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그 상징적 의미를 더해가는 과정이 분석대상 자료에 그대로 드러난다. 1980년대 초반에는 기사제목에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귀감” 수준에 머물렀던 수식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차원을 거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항일의 녀성영웅” 등으로 점차 변화한다.

이런 기초적 발견을 토대로 분석대상 자료를 토대로 김정숙의 이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치밀하고 촘촘하게 조사하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삼았다. 북한당국이 김정숙의 이름을 이른바 “송고한 귀감” 표상으로 떠받드는 한편 여성들 대상으로 그 “모범적” 행적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는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현하는지, 북한당국은 어떤 의도로 여성이 김정숙 행적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의 특징은 상징정치로 작동한다고 규정한 뒤 그 내부적 작동원리의 본질을 이해하려 할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존재를 드러내는 구호나 조형물의 사회심리적 기능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있었다.<sup>5)</sup>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3대 세습을 이어가

---

5) 이승현, “김일성, 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2012), 77~108쪽;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156~224쪽;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조현수,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2010), 193~216쪽; 하승희,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음악정치

는 권력자 이름을 분석하면서도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의 하나로 작동하는 김정숙의 존재에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김정숙의 상징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북한의 시에 나타나는 진달래 이미지나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여성담론이나 국가가부장제 재생산 담론을 분석하면서 부차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거론하는 수준이었다.<sup>6)</sup>

북한당국이 김정숙 표상을 여성의 모범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명예남성’ 개념은 이 연구에 유용하다. 명예남성이란 가부장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여성을 의미한다.<sup>7)</sup>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수의 여성이 명예남성의 의식을 지닌 채 지도자 지위에 올라간다 해도 대다수 여성의 보편적인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명예남성의 위치에 오른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북한여성의 생활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김정숙이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김정숙 표상이 명예남성으로서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일종의 좌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유형의 연구를 시작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북한당국이 바람직

---

양상: “로동신문” 1면 악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2015), 232~261쪽.

6)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당국의 여성담론,”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2009), 153~185쪽; 이상숙,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2008), 183~201쪽;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2016), 131~164쪽.

7) Allison Heisch, “Queen Elizabeth I and the Persistence of Patriarchy,” *Feminist Review*, Vol.4(1980), pp.45~56.

한 여성상으로 김정숙 이름을 제시하는 현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했는지 찾아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연구의 틈새를 찾아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심화하려 한다는 점에 이 글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관련 분야 자료 수집과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분단 이후 북한사회에서 김정숙의 이름이 일종의 상징으로 작동했던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과 특징

### 1) 『조선여성』 소개와 국내 보유 현황

『조선여성』은 북한 내 유일한 여성잡지로 1946년 9월호 창간 이후 2017년 12월 현재까지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지위를 누린다. 창간호 이후 1967년 4월호까지 월간잡지 형태로 나왔으나 그 해 5월호와 6월호는 합본으로 격월간 형식이 등장한다. 1967년 7월호 이후 월간잡지 형태로 돌아가지만 왜 5월호와 6월호만 합본으로 발간했는지 밝히지 않는다. 다만 1967년 5월은 김일성이 이른바 5·25교시로 북한사회 전역에 숙청의 바람을 일으키던 시점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 무렵 북한당국은 갑산과 거두 김도만과 박금철을 숙청하면서 김일성에 맞서는 세력을 정리하는 상황이었다.

1980년 12월에는 『조선여성』, 제385호가 나오고 제386호는 1981년 2월에 2월~3월 합본으로 등장한다. 387호는 1981년 4월에 4월~5월 합본으로 나온다. 1982년 6월호 이후 『조선여성』이 아예 격월간지로 방식을 바꾸어 2000년까지 이 형식을 유지했다. 당시에 왜 어느 시

점에 합본으로 잡지가 나오는지, 갑자기 격월간지로 발행주기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봐도 『조선여성』 기사에서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자신이 김일성의 후계자라고 천명한 김정일이 자신의 계모 김성애가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사회적 위세를 꺾는 방편으로 그 기관지인 『조선여성』 연간 발간 빈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1982년 7월에는 『조선여성』 7월호가 나오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조선여성』 발간 형식은 격월간지로 바뀌었다. 그 결과로 『조선여성』 1982년 제7호는 그해 8월에 누계 401호로 나왔고 제8호는 10월에 누계 402호로, 제9호는 12월에 누계 403호로 각각 등장한다. 그리고 2000년 12월에 그해의 마지막 호인 제6호로 누계 제511호가 나올 때까지 『조선여성』은 격월간으로 매년 6권의 잡지를 발행한다. 2001년 1월호로 나오는 누계 제532호 발간 당시 월간잡지 형태로 발간 방식을 바꾸어 2017년 12월 현재 그 형식을 유지하는 상황이다.<sup>8)</sup>

1956년 이후 초창기 『조선여성』은 누계 몇 호인지 밝히지 않았고 대략 40쪽 내외 분량이던 반면 2017년 12월호는 누계 제715호라고 명시하고 56쪽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1956년 당시에는 편집위원 명단이나 발행부수, 가격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선여성』지면에 나온다.<sup>9)</sup> 반면 2017년 12월호에는 이런 정보가 등장하지 않아 잡지의 폐쇄

---

8)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이 글에서 『조선여성』 0000년 00월호와 『조선여성』 0000년 00호라는 표기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1982년 7월 이후 2000년까지 격월간지 형태로 잡지가 나오던 기간에는 0000년 00호로 표기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주로 월간지 형식으로 발간하는 기간에는 0000년 00월호라는 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9) 1956년 당시 30,000부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다가 1957년에는 50,000부로



적 성격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 2)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 과정 및 특징

이 글에서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했던 『조선녀성』 기사는 총 528건에 이른다. <표 1>은 총 528건의 『조선녀성』 기사가 등장하는 빈도를 5년 주기로 묶어 제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기간별 『조선녀성』 특집 및 개별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

기간	기사 수 (개)	전체 기사 수(개)	전체 기사 수 대비 비율(%)	연평균 기사 수(개)	연평균 기사 수 대비 비율(%)
1956년~1980년	6	5,438	0.11	271.9	2.21
1981년~1985년	17	1,245	1.37	249.0	6.91
1986년~1990년	19	872	2.18	174.4	10.9
1991년~1995년	14	960	1.46	192.0	7.3
1996년~2000년	25	1,201	2.08	240.2	10.4
2001년~2005년	151	2,536	5.96	507.2	29.77
2006년~2010년	197	3,674	5.36	734.8	26.81
2011년~2015년	79	3,971	1.99	794.2	9.95
2016년~2017년	20	1416	0.014	708.5	0.028

주: 분석대상 자료에 포함된 기사는 아니지만 『조선녀성』에는 드물게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간혹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김정숙” 이름으로 기사를 게재한 1957년 4월호와 1975년 4월호와 달리 글쓴이가 “너맹통신원 김정숙”으로 등장하는 2011년 1월호는 주목할 가치를 지닌다. 1975년 이후 북한당국은 김정숙의 고향으로 알려진 회령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고 도시를 정비하는 등 우상화에 몰두하면서(김석향, 2013) 주민들 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개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1년 1월호에 기사를 쓴 “너맹통신원 김정숙”은 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늘어나고 1958년에 60,000부로 나오는데 그동안 잡지 가격은 계속 40원으로 고정적이었다.

<표 1>에 따르면 1956년-1980년 기간에 분석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김정숙 이름의 등장 사례는 총 6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낮은 이유는 우선 국내에 1968년 이후 10여 년 동안 『조선녀성』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호가 전혀 없는 1981년 이후 1990년까지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36건이고 1991년 이후 2000년 기간에 39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1980년 이전 『조선녀성』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외에도 1982년 7월 이후 2000년 12월에 이르는 동안 『조선녀성』이 격월간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료를 선정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잡지 총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분석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김정숙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간은 2006년 이후 2010년으로 총 197회에 이른다. 2001년 이후 2005년 기간에는 151건을 기록하여 2위를 차지한다. 결국 이런 유형의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2001년 이후 2010년에 이르는 10년 기간이다.<sup>10)</sup> 반면 2011년 이후 2015년 기간에 김정숙 이름이 총 79건 등장하고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20건으로 나타나 그 빈도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특히 2017년은 김정숙 출생 100주년이지만 9월호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특집기사 7편을 수록했고 12월호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특집기사 8개를 집중 배치했을 뿐, 그 이외에는 김정숙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2011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에 김정숙

---

10) <표 1>에서 연평균 기사 수 대비 김정숙의 이름이 제목에 등장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01~2005년 기간이 가장 높아서 29.77% 수준이고 2006~2010년에는 26.81%로 그 순위가 달라졌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큰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름이 등장하는 비율은 감소세로 봐야 한다. 이 기간은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 이후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최고 지도자 지위를 물려받은 시기인데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남긴다.

### 3.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여성의 표상, “김정숙”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당국이 여성의 표상으로 김정숙을 내세우려 했던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분석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1956년 이후 2017년 기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총 528회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정숙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 “녀사·어머니·어머님” 등 다양한 호칭을 동원하여 그녀의 활동을 묘사하는 기사도 등장한다. 2015년 1월호 이후 2017년 12월호까지 『조선녀성』은 “☆ 백두산의 녀장군 ☆” 제하에 매월 평균 5개 이하 특집기사로 김정숙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동일한 기간 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 소속의 다른 여성 이름은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 북한당국이 김정숙과 함께 바람직한 여성상의 전형으로 내세워 온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이름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분석대상 자료를 기준으로 강반석의 이름 빈도를 확인한 결과, 1967년 『조선녀성』 7월호에 처음 등장 이후<sup>11)</sup> 2009년 4월호에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sup>12)</sup> 총 20여 회

---

11) 저자 미표기,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 녀사,”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6쪽.

등장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1967년과 1968년 기간에 절반 이상 나타나고 그 이후 강반석 이름이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조선녀성』 기사에서 김정숙 생일은 70돌과 75돌, 90돌, 95돌, 96돌, 97돌, 99돌, 100돌 등 계기마다 꾸준히 언급한다. 김정숙 “서거” 기사도 2013년 9월호에 “63돌 특집” 내용이 처음 등장한<sup>13)</sup> 이후 2013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김정숙 “서거” 관련 기사도 등장한다. 반면에 강반석은 1982년 4월호에 단 한 차례 90회 생일을 기념하는 기사가 한 편 나왔다.<sup>14)</sup> 김일성 조모 리보익의 이름도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사례는 2회에 불과하다.<sup>15)</sup>

김정숙의 이름과 비교할 때 그녀의 시어머니 강반석이나 시할머니 리보익은 그 등장 빈도가 초라한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김정숙의 며느리이며 김정은 생모인 고영희는 물론이고<sup>16)</sup> 손자며느리와 손녀에 해당하는 리철주와 김여정의 이름은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 여인 중에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단연코 김정숙이다.

- 
- 12) 한경림, “민족의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의 불멸의 업적,” 『조선녀성』, 2009년 4월호, 21쪽.
  - 13) 김경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3돌을 맞으며: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백두산녀장군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선녀성』, 2012년 9월호, 13쪽.
  - 14) 백옥선, “강반석 어머니님 탄생 90돌을 맞으며: 태양을 안아키우신 위대한 사랑,” 『조선녀성』, 1982년 4월호, 44쪽.
  - 15) 저자 미표기, “강의한 성품을 지니신 열렬한 애국자 리보익 할머님,” 『조선녀성』, 1989년 제5호, 26쪽; 본사기자, “애국의 높으신 뜻 지니신 리보익 녀사,” 『조선녀성』, 2007년 5월호, 17쪽.
  - 16) 김정은의 생모는 그동안 고영희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그녀의 이름이 고용희라는 의견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고용희라는 이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 소속이 아니지만 북한 전역에 널리 알려진 여성들 이름이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쳤다 하는 “태성할머니” 호칭은 연구자가 수집한 『조선녀성』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1991년 제4호에 처음 나왔고<sup>17)</sup> 2003년 8월호에 마지막 나올 때까지<sup>18)</sup> 총 4회 등장한다. 소위 정춘실 운동으로 북한 전역에 잘 알려진 정춘실은 1986년 제5호 표지에 처음 등장한 이후<sup>19)</sup> 2007년 12월호에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sup>20)</sup> 총 10회 정도 나온다. 결국 북한당국이 『조선녀성』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제시하려 했던 여성상의 전형은 강반석을 비롯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 소속 다른 여인은 물론이고 널리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 아니라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이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1956년 이후 2017년에 이르는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 연도별 김정숙 이름의 등장 현황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림 1>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1>에 나타나는 김정숙 이름의 연도별 등장 빈도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제부터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을 살펴보면 1981년과 1982년에 각각 김정숙 이름이 6회와 7회 등장했고 1987년에 12회, 1992년에는 14회에 이르는 등 특정연도 전후에 다른 해보다 높은 빈도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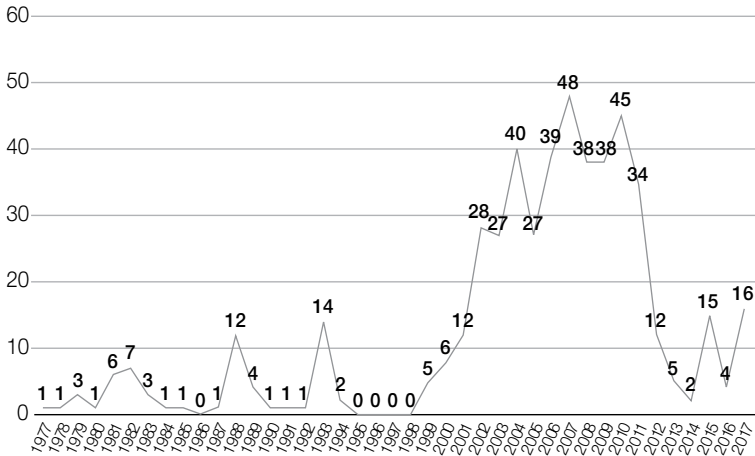
17) 로춘심, “〈태성할머니와 나〉 결의모임을 실속있게,” 『조선녀성』, 1991년 제4호, 16쪽.

18) 본사기자 오성대, “개선거리의 〈태성할머니〉,” 『조선녀성』, 2003년 8월호, 34쪽.

19) [표지], “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충성으로 자라난 2중로력영웅 정춘실 동무,” 『조선녀성』, 1986년 제5호.

20) 로일남,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자세와 립장은 정춘실 동무와 같이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조선녀성』, 2007년 제12월호, 21쪽.

<그림 1> 『조선여성』 특집 및 개별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 이름의 연도별 빈도



주: <그림 1>에 1980년 이전 김정숙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연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매우 낮은 기간이라 이런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1981년 이후에는 해마다 특집과 개별기사 제목에 김정숙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를 빠짐없이 표기하여 <그림 1>을 완성하였다.

볼 수 있다.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5년 간격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특정 기념일을 기준으로 5주년이나 10주년 시점을 이른바 “겪어지는 해”로 강조하는 관행을 지킨다는 점을 이해하면 설명하기 쉽다.<sup>21)</sup> 1982년이 김정숙 출생 65주년이고 1987년은 70주년이며 1992년이 75주년으로 해당 연도에는 그 전후보다 그 이름의 등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1998년부터 분석대상 자료에서 매해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확연하게 증가한다. 1998년에 5회로 시작하지만 1999년 8회를 넘

21) 북한당국은 특정 기념일의 5주년과 10주년을 “겪어지는 해”로 기념하지만 그중에서도 10주년이 되는 시점을 이른바 정주년으로 명명하면서 크게 행사를 기획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 2000년에는 12회로 해마다 상승했다. 2001년에는 28회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한다. 분석대상 자료에서 연도별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기간은 2001년 이후 2012년에 이르는 12년이었다. 2007년에는 48회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2011년에는 45회를 기록했고 2003년에는 40회에 이르러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은 김정숙 출생 90주년이니 그 이름의 빈도가 왜 높게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반면 2003년과 2011년은 “깍어지는 해”도 아닌데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림 1>을 토대로 김정숙 이름의 연도별 빈도에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니 단계별 분기점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제1단계는 1956년 이후 1980년으로 김일성 집권 전반기에 해당한다. 당시 분석대상 자료에는 김정숙 이름이 총 6회 등장한다. 24년 동안 총 6회 등장하니 연평균 0.25회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1968년 이후 1978년까지 결호를 보완하면 이 수치는 상승하겠지만 1980년 이후 10년 이상 상황을 관찰해 볼 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당시 북한사회 내부에서 김일성 호칭을 수상에서 “수령”으로 바꾸고 조선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주체사상을 명시하는 등 이른바 유일체제를 만들면서 김정일을 그 후계자로 만들기 시작했다.

제2단계는 1981년 이후 1997년으로 김일성 집권 후반기와 그의 사망 이후 북한당국이 이른바 공식적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던 3년 기간을 포함한다. 총 17년 기간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 이름이 총 50회 등장함으로써 제1단계에 비해 그 빈도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

평균 2.94회로 3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시 후계자 김정일이 점차 실질적 정치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다. 당시 김정일은 이른바 북한식 3년상을 치르며 정치무대에 나서지 않고 첩거하다가 1997년 7월 9일 죽은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태양절과 주체연호를 제정하고<sup>22)</sup> 주석 직위는 비워 둔 채 국방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취임했다.

제3단계는 1998년 이후 2011년으로 이 기간은 김정일이 그 아버지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유일한 정치지도자로 권력을 독점하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기간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총 418회 등장한다. 연평균 29.86회 정도를 기록한 것이다. 앞서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 이후 북한당국의 공식 애도기간이 끝나는 1997년에 이를 때까지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의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다음 해인 1998년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해가 갈수록 김정숙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흐름은 1998년 이후 등락을 겪으면서도 2011년 김정일 사망 시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제4단계는 2012년 이후 2017년 기간으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단독 집권기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이전 단계에 비해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 김정숙 이름이 총 54회 등장하여 연평균 7.7회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에는 분석대상 자료에 등장하는 김정숙 이름이 전년도에 비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5회와 2회로

---

22) 1997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북한당국은 죽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여 태양절로 제정했다. 또한 김일성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주체 1년으로 정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급격히 낮아진 이후 2015년에 15회로 잠시 회복하는 듯 했지만 2016년에 4회로 주저앉았다. 2017년에 총 16회로 그 숫자가 늘어난 것 같지만 이 해가 김정숙 출생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12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북한사회 내 김정숙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sup>23)</sup> 다만 1998년 이후 2011년 기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이 등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그 빈도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1956년 이후 2017년에 이르는 동안 분석대상 자료에서 연도별 김정숙 이름의 등장 빈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선녀성』 어디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60년이 넘는 시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김정숙 이름의 등장 양상은 분명한 진폭을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김정숙 이름을 활용하여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이 글에서 각 단계별로 김정숙의 호칭과 수식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의문을 해소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 한다. 제1단계 이후 제4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선녀성』 기사의 제목에서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주는 호칭과 수식어로

---

23) 실제로 2015년 1월 이후 2016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발간되어 나온 『조선녀성』 잡지를 살펴보면 한 호도 빠짐없이 “☆ 백두산의 녀장군 ☆” 제하에 김정숙 관련 특집 기사를 꾸준히 수록하고 있다. 개별 기사의 제목을 보면 김정숙 관련 이야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존재를 암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북한사회 내 김정숙의 상징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유형의 기사도 함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논지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분석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단계별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의 지속과 변화

단계	기간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	빈도	비고		
제1단계	1956년~1980년	김정숙 동지	2	김일성 집권 전반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녀사	1			
		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 김정숙 어머님	1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	1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동지	1			
제2단계	1981년~1997년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귀감이신 김정숙 녀사	6	김일성 집권 후반기/ 김정일 후계자로 등장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녀사	2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	27			
		김정숙 어머님	1			
		김정숙 녀사	1			
		백두산 항일녀장수 김정숙	1			
		김정숙 동지	1			
제3단계	1998년~ 2011년	1998년~ 2001년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	48	김정일 집권기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 동지	1		
			김정숙 어머님	4		
		2002년~ 2011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	364		
제4단계	2012년~ 2017년	2012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	12	김정은 집권기	
		2013년~ 2014년	• 회세의 천출위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		7
			☆백두산의 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		26
		2015년~ 2017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	8		

주: 이 표에 등장하는 호칭과 수식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호칭과 수식어는 제1단계의 “김정숙 동지”이며 제일 늦게 나온 표현은 제4단계 “☆백두산의 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였다.

등장하는 빈도를 정리해 보면 총 515회에 이른다.<sup>24)</sup>

이 부분에서는 1956년 이후 2017년에 이르는 동안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 사용의 단계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제1단계에서 제4단계로 가면서 김정숙의 성별을 드러내는 표현의 등장 빈도는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 내용과 같다.

우선 제1단계인 1956년 이후 1980년 기간에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김정숙을 가리키는 호칭이 동지<sup>25)</sup>·녀사<sup>26)</sup>·어머님<sup>27)</sup>·동지<sup>28)</sup> 순서로 등장한다. 동지는 북한에서 상급자를 존대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폭넓게 사용하는 호칭이다.<sup>29)</sup> 반면 녀사와 어머님은 김정숙이 “사회적으

---

24) 이 글의 분석대상 자료를 소개하면서 1956년 1월 이후 2017년 12월까지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총 528회에 이른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런데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주는 호칭과 수식어로 등장하는 표현이 총 515회에 이른다. 나머지 12회에는 김정숙의 이름이 나오지만 호칭과 수식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정숙탁아소”(1988년 제4호), “김정숙형의 인간”(1999년 1월호), “김정숙형의 참다운 여성혁명가”(2001년 10월호), “김정숙평양제사공장”(2017년 11월호)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25) 저자 미표기,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김정숙 동지를 회상하며,” 『조선녀성』, 1963년 10월호, 12쪽; 김명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김정숙 동지를 회상하며,” 『조선녀성』, 1967년 5-6월호(합본), 25쪽.

26) 저자 미표기,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녀사를 따라배운다,” 『조선녀성』, 1975년 8월호.

27) 리광선, “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 김정숙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조선녀성』, 1975년 12월호, 6쪽.

28) 저자 미표기,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녀성』, 1980년 12월호, 11쪽.

29) 북한당국은 동지라는 용어가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말은 “혁명전우들 사이에서 영예롭고

로 높여” 불러야 할 여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sup>30)</sup> 제1단계에서 김정숙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불요불굴의 혁명투사·혁명의 어머니” 등으로 나타난다. 제1단계 기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이 불과 6회 나올 뿐이지만 그때마다 호칭과 수식어가 달라 전형적 형태는 찾을 수 없다. “녀사” 및 어머님보다 동지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만 특정 용어가 다른 표현보다 더 자주 나온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호칭과 수식어가 혼재하는 상황이었다.

제3단계인 1998년 이후 2011년 기간에는 주로 동지와 어머님 호칭으로 김정숙을 부른다. 앞서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김정숙의 성별을 드러내는 “녀사” 호칭이 꾸준히 등장했으나 제3단계에 이르면 분석대상 자료에서 “김정숙 녀사” 표현은 완전히 사라진다. 김정숙의 성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었던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제3단계 동안 4회 나올 뿐이었다. 제3단계에서 김정숙을 부르는 호칭은 총 417회 등장한다. 그 가운데 김정숙 동지라는 표현이 무려 413회를 차지하여 다른 호칭을 압도한다. 결국 제3단계에서 김정숙을 동지로 부르는 관행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자리를 잡는 현상은 김정숙의 호칭뿐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3단계에서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주는

---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로” 되거나 “〈존함 뒤에 쓰이어〉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덧붙인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1168쪽.

- 30) 녀사명 ①《사회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녀성활동가》를 높여 이르는 말 ② 결혼한 여자의 이름 뒤에 쓰이어 그 여자를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높여 이르는 말,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848~849쪽; 어머님명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328쪽.

수식어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백두의 녀장군·항일의 녀성영웅” 등이다.<sup>31)</sup> 이런 표현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었다. 그 가운데 단 한 차례 나온 “백두의 녀장군”은 제2단계에서 1회 등장한 “백두산 항일녀장수”와 백두라는 용어를 공유하여 그나마 이어지지만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및 “항일의 녀성영웅” 등은 앞서 나온 일이 전혀 없다. 두 개의 표현이 등장하는 시기가 1998년~2001년과 2002년~2016년 기간으로 또렷하게 나누어진다는 점도 재미있다.<sup>32)</sup> 그러나 제3단계에서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표현은 48회에 나오는 반면 “항일의 녀성영웅”은 무려 364회에 이르러 등장 빈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결국 제3단계를 거치면서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김정숙의 호칭과 수식어는 전면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단계를 지나면서 김정숙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할 때 “녀사” 용어가 자취를 감추고 동지로 굳어졌다. 반면 김정숙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에서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인 2012년 이후 2017년 기간에 김정숙을 가리

---

31) 제3단계에서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어머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4회인데 그녀의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려숙영,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우는 학습회〉를 실속있게 조직하여,” 『조선녀성』, 2002년 2월호, 31쪽; [표지], “김정숙어머님을 노래합니다(노래),” 『조선녀성』, 2004년 11월호, 표지 2면; [표지],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노래),” 『조선녀성』, 2004년 12월호, 표지 2면; 본사기자,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우는 학습회〉를 실속있게,” 『조선녀성』, 2007년 11월호, 44쪽.

32)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라는 표현은 1998년 1월 이후 2001년 12월까지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서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인다. 반면 “항일의 녀성영웅”이라는 수식어는 2002년 1월 이후 줄곧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

키는 호칭은 한 차례 예외도 없이 늘 동지라는 용어로 일관성을 지닌다. 제3단계 중간이던 2002년 1월호 『조선여성』 기사 제목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 표현이 처음 나온 이후 2017년 12월호까지 『조선여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이 등장할 때 늘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 형태를 고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4단계는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에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기간이기도 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 표현을 그대로 쓰는 일에 변함이 없는데 2012년과 2013년~2014년, 2015년~2017년 기간에 미묘한 변화를 드러낸다. 우선 2012년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가 나오는데 2013년~2014년에 새로운 수식어 “● 희세의 천출위인 ●” 아래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2015년~2016년 2년 동안 “☆백두산의 너장군☆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2015년 1월호 『조선여성』 기사 제목에 처음 나온 뒤 2016년 12월호까지 매달 빠짐없이 나왔다. 2017년 12월호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특집 기사 8개가 나오기도 한다.

#### 4. “김정숙” 표상의 정치사회적 의미

이 부분에서는 3절과 4절에서 읽어낸 “김정숙” 표상이 지닌 정치사회적 의미를 시대별로 분석한다. 또한 북한당국이 김정숙 표상을 활용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어떤 “미덕”을 강조했다는지 찾아내고자 한다.

## 1) 제1단계(1956년~1980년)

제1단계에는 다양한 여성이 모범전형으로 등장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젠티킨, 쉘니 맑스, 렌카 크롭쓰가야” 등 외국인부터 “쏘련 여성, 소베르 어머니, 체코 슬로바키아의 자매들”<sup>33)</sup> 등을 거쳐 “로양잠가 리순신 할머니, 판매원 원수자, 녀의사 정성희, 천리마 기수 박봉녀”<sup>34)</sup> 등 북한여성의 이름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1960년대 중반까지 『조선녀성』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김정숙 이름은 1회 등장하지만 마르크스 부인 엔니 마르크스와 독일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은 각각 2번씩 나타난다. 1957년 12월호에 김정숙 생일축하 기사는 없지만 당시 여맹위원장 박정애의 50세 생일축하 기사가 1958년 9월호 1면에 등장한다.<sup>35)</sup> 기사 내용에는 여성의 가족 내 역할보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칭송하는 언설이 나타난다.

---

33) 저자 미표기, “녀자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활동,” 『조선녀성』, 1956년 1호, 17쪽; 저자 미표기, “클라라 젠티킨,” 『조선녀성』, 1957년 3월호, 3쪽; 저자 미표기, “맨 처음 만난 쏘련 여성,” 『조선녀성』, 1957년 8월호, 6쪽; 저자 미표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자매들,” 『조선녀성』, 1959년 5월호, 26쪽; 저자 미표기, “쉘니맑스,” 『조선녀성』, 1959년 7월호; 저자 미표기, 로씨야의 녀성 혁명가들, 『조선녀성』, 1960년 2월호, 22쪽; 저자 미표기, “오늘의 쏘련 녀성들,” 『조선녀성』, 1960년 9월호, 30쪽; 저자 미표기, “세계에 이름난 녀성들-칼 맑스의 부인 엔니 맑스,” 『조선녀성』, 1960년 12월호, 34쪽; 저자 미표기, “렌.까.크롭쓰가야,” 『조선녀성』, 1964년 6월호; 저자 미표기, “클라라 제트킨,” 『조선녀성』, 1964년 10월호, 76쪽.

34) 저자 미표기, “로양잠가 리순신 할머니,” 『조선녀성』, 1957년 6월호, 22쪽; 저자 미표기, “판매원 원수자,” 『조선녀성』, 1957년 11월호, 2쪽; 저자 미표기, “녀의사, 정성희,” 『조선녀성』, 1960년 5월호, 33쪽; 저자 미표기, “〈오체르크〉 천리마 기수 박봉녀,” 『조선녀성』, 1960년 8월호, 25쪽.

35) 저자 미표기, “박정애위원장 탄생 50주년을 축하한다,” 『조선녀성』, 1958년 9월호, 1쪽.

(폴론파이는) 결혼하였으나 부르쥬아 가정의 비활동적인 생활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3년후에 그는 리혼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바로 이 시기부터 아. 엠. 폴론파이의 정치적 활동은 시작되었다. (중략) 10월 혁명 후 아. 엠. 폴론파이는 쏘베트 나라의 혁명정부 성원으로 들어간 첫 녀성이었다. (엡센은) 소책자들을 집필했으며 많은 론설과 당 력사 서적들에 대한 평론도 썼다.<sup>36)</sup>

제1단계 중간 지점 1967년을 기점으로 김정숙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그 이름이 김일성 가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범 표상으로 떠오른 것도 아니었다. 제1단계 내내 강반석 이야기는 16회 등장하여 김정숙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갑산과 숙청 직후인 1967년 7월호에는 제목에 “강반석” 이름을 게재한 기사가 5건 등장한다.<sup>37)</sup> 또한 모범적 여성전형을 강반석을 비롯한 김일성 가계로 한정하는 현상이 등장한다.

197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 후처인 김성애를 더 높은 존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면을 살펴보면 “김성애 동지께서, 존경하는 김성애 위원장동지께서 (중략) 지도하시었다” 같은 문구를 포함한 제목과 김성애 사진이 등장한다.<sup>38)</sup> 김성애가 상당한 힘을 지닌 채 북한 내 유일한

36) 저자 미표기, “로씨야의 녀성혁명가들,” 『조선녀성』, 1960년 2월호, 22~23쪽.

37) 김이네, “강반석 녀사의 모범에서 배워-당에 더욱 충직한 안해가 되겠습니다,”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15쪽; 안성길, “강반석 녀사의 모범에서 배워-아들을 수상님의 참된 전사로 키우겠습니다,”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16쪽; 방금복, “강반석 녀사의 모범에서 배워-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겠습니다,”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17쪽; 저자 미표기, “강반석 녀사를 따라 배우는 녀맹원들,”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2쪽; 저자 미표기, “조선의 어머니-강반석 녀사,” 『조선녀성』, 1967년 7월호, 6쪽.

38) 저자 미표기, “녀맹 제4차 대회를 앞두고: 김성애 동지께서 각급 녀맹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었다. (사진과 글),” 『조선녀성』, 1971년 5월호, 26쪽; 저자



여성 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오래 전에 사망한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그 적정선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1975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떠오른 다음에야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녀사, 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 김정숙 어머니” 같은 수식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 직후인 1980년 12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간직함”<sup>39)</sup> 김정숙 교양사업을 강화하자는 글도 나타난다.

제1단계에서 김정숙 호칭이 그 위치를 잡아가는 궤적을 살펴보면 여성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단일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북한당국이 추구하는바 김일성 체제에 충실한 존재로 자리를 잡아 가는 양상이 드러난다. 한 사람의 여성이 지니는 특성을 삭제하는 차원을 넘어 모범전형의 내용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한 존재로 단일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김정숙의 위치는 가부장의 아내와 어머니로 그 존재의 의미를 지닐 따름이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확정된 후에야 김정숙이 등장하기 시작한 사실도 가부장의 아내보다 부권승계를 한 적자(嫡子)의 생모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북한당국은 김일성 독재체제를 조성하는 과정과 아울러 김정일에게 지도자 지위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김정숙이라는 명예남성을 동원하여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를 더욱 가부장에 충실한 존재로 만들었다.

---

미표기, “존경하는 김성애위원장동지께서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녀맹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녀성』, 1972년 8-9월호, 6쪽.

39) 저자 미표기,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녀성』, 1980년 12월호, 11쪽.

## 2) 제2단계(1981년~1997년)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 지위를 얻은 후 김정숙은 사실상 비교대상이 없는 모범 여성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 후반 김정숙이 여맹을 지도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여맹의 시원을 김정숙에게서 찾는<sup>40)</sup> 기사도 나타났다. “녀사, 어머니” 호칭의 경우 “동지” 호칭보다 기사의 내용이 장황하고 분량도 길다. 가장 확연한 변화는 김정숙이 김일성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칭송하는 언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정숙이 ‘동지’ 칭호로 나타나기 이전인 1981년에는 총 8쪽에 걸쳐 김정숙의 ‘미담’을 게재하기도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는 혁명 동지”<sup>41)</sup> 같은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김정숙은 “일신이 방패되시여,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친위전사”<sup>42)</sup> 역할로 나타난다.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녀사께서는 언제나 그지없이 경건한 태도를 가지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정중히 대답을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나는 장군님을 우리러 혁명의 길에 나선 이후 이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을 우리 인민의 수령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모셔왔어요. 이것은 아마 내 생애가 끝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예요. 나는 언제나 자신을 장군님의 혁명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여사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마른풀뿌리도 귀하고 나무껍질도 아쉬워 얼음을 깨물고 눈을 녹여마시던 간고한 날에도 사령관 동지를 위해 배낭 속에 비상미를 떨구지 않으셨고 키를 넘는 누속에서 연한 나물잎을 찾아

---

40) 저자 미표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녀성동맹의 성격,” 『조선녀성』, 1987년 11~12월호, 28쪽.

41) 분사가자, “〈공산주의 도덕과 생활〉 부부는 혁명동지,” 『조선녀성』, 1995년 4월호, 40쪽.

42) 저자 미표기, “백두산 항일 녀장수 김정숙,” 『조선녀성』, 1991년 6월호, 13쪽.

내군 하시였다고 (중략)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께서 생전에 지니셨던 가장 큰 념원은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장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을 인민의 지도자로, 혁명의 향도성으로 자라시는 것이였습니다 (중략) 저는 녀사께서 저의 심장에 뜨겁게 심어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드는 한길에 한몸바치고 대를 이어 충성다할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sup>43)</sup>

이 인용문에는 제2단계부터 북한당국이 김정숙 표상을 통해 ‘남편 공대’를 여성의 우선 덕목으로 강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또한 가장 지위를 승계할 아들을 낳아 양육하는 것이 남편공대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총 8쪽에 걸친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 보면 아내와 어머니 역할 모두 똑같이 4쪽으로 등장한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김정숙 표상을 통해 여성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가장 큰 념원, 대를 잇는” 행위라는 점이 드러난다. 김정숙이 당시 최고 권력자 김일성의 아내라는 점을 먼저 거론하면서도 권력의 세대교체에 순응하고 새로운 권력에 충성할 자녀양육에 힘쓸 것을 강조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내세웠다.

그런데 제2단계에 나타난 김정숙 표상의 또 다른 의미는 김정일 계승의 ‘정당성’ 강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혈연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인을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그 부모의 ‘혈통’ 계승자로 본다. 그리고 혈연을 논리로 독재자 지위 세습을 정당화 하려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결가지” 따위와 다른 “백두혈통” 적자라는 것을 내세워야 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백두혈통” 후계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김정숙 표상을 활용했다. 1980년대

---

43) 강길복,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녀사를 모시고,” 『조선녀성』, 1980년 4호, 15쪽.

후반 들어 북한당국은 백두산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을 칭송하는 문구를 새겨 넣은 “구호나무” 군락지를 갑자기 발견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 초반 이후에 『조선녀성』지면을 통해 “구호나무” 문구를 명분으로 “백두산 3대 위인” 김정숙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제2단계에서 북한당국이 활용한 김정숙 표상으로 또 하나의 유형은 “해방 후 현지도” 사례에 나타난다. 이런 유형의 기사를 보면 김정숙이 단순한 모범인물 차원을 넘어 여성 지도자 지도자로 떠오를 것을 도모했던 북한당국의 계획이 드러난다.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김정숙의 “현지도” 현장을 보면 3·8탁아소, 명주실 공장(제사공장), 방직공장, 곡산공장, 피복공장<sup>44)</sup> 등 다수 종사자가 여성이거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해 온 가사, 돌봄, 경공업 영역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기사는 대체로 김정숙이 직접 찾아가 “여성의 역할”을 지도하고 “당의 방침에 따라” 더 많은 생산 결과를 내도록 격려했다는 방식으로 성역할을 규정한다.

이 현상은 경제적 배경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2단계는 북한 경제가 침체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배급제 중단에 이르는 1990년대 중후반에 해당한다. 1984년 북한당국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폐산물을 가내 작업반에서 생필품으로 재생산하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르면 대다수 주민이 각 가족 내 여성의 장사에 의존해 생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북한당국의 김정숙 표상 활용 작업은 성별분업 논리를 활용하여 민생경제영역을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sup>45)</sup>

---

44) 저자 미표기, “수필 녀성의 노래를 들으며,” 『조선녀성』, 1991년 4호, 15쪽.

### 3) 제3단계(1998년~2011년)

제3단계에 김정숙이 사실상 유일한 모범전형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이유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숙을 대체할 만한 여성 모범상을 찾을 수 없었다. 김정일의 아내는 여러 명이었고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는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오랫동안 “항일” 전통에서 김일성-김정일 가계의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내부의 여성을 설득·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남성 “세대주” 중심의 배급·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가부장 질서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 내부에서 생필품 수급은 불가능했고 외부 물품이 장마당에 나타나면서 한국드라마를 비롯한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도 함께 등장했다. “머리가 깨인” 여성이 늘어나 생계 책임과 집안일을 모두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성을 향해 “낫전등, 멍멍이” 정도로 비하하는 일도 많아졌다.<sup>45)</sup> 이런 상황에서 여성 “교양” 목적으로 북한당국은 김정숙을 따라 배우라고 더욱 강조했다.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중략) 우리 녀성들이 남 녀평등권법령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여 녀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품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혁명사업에서는 남자들 못지않게 견결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녀성다운 맛이 있어야 하고 언행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녀성들은 레절도 잘 지키고 이웃간에 화목하며 남편과 시부모 공대도 잘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

4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193쪽.

46)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여성학논집』, 제33권 1호(2016), 99~134쪽.

하며 나라와 집안의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sup>47)</sup>

여성의 불만에 북한당국은 모범전형인 김정숙 표상을 명예남성화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가부장 질서가 칭송하는 여성의 모습을 체현하고 실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명예남성 역할을 김정숙에게 부여한 것이다. 앞서 제2단계에서도 김정숙은 가부장제에 충실한 여성으로 나타났지만 이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타자에게 직접적 언설로 “가르치시는” 상황은 아니었다. 긍정적 양상을 보여주는 데 그쳤던 시절과 달리 제3단계에서는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경고하는 인물로 북한당국이 김정숙 표상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김정숙 호칭 또한 “여사, 어머님” 대신 “동지”로 굳어진다. 물론 김정숙을 칭송하는 노래 가사와 시에서는 여전히 “어머님” 호칭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훈계하고 규제해야 할 때 김정숙의 표상을 보다 권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지라고 불렀던 반면 정서적이고 긍정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머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김정숙을 향해 “여사, 어머님” 등 성별이 드러나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일의 “총대, 선군” 기조를 더욱 강조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이 무렵부터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선군 기조는 북한당국이 정권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한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 다음 인용문은 김정숙을 “항일여성영웅”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드러낸다.

---

47) 저자 미표기,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를 따라배우자. 혁명설화 남녀평등권 법령을 옹기 리행하여야 한다시며,” 『조선녀성』, 2001년 7월호, 13쪽.

주체 26(1937)년 음력설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신입대원들의 식탁에는 만둣국과 조차떡을 비롯해서 집에서는 볼수도 없었던 음식들이 올라 있었다. 푸짐한 명절음식상앞에 둘러앉은 대원들을 정답게 바라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는 (중략) 동무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은정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지어준 음식처럼 많이 들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sup>48)</sup>

장군님의 렬차여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렬차속도와 침실, 사무실의 조명, 온습도보장문제 등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그리고 머나먼 현지에 이르시어서는 오늘만이라도 좀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녀성일군들에게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부강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한 번 실컷 쉬어보자고 하시며.<sup>49)</sup>

인용문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여성에게 건네고 싶었을 일말의 위로와 설득, 요구가 김정숙 표상에 담겨 있다. 2000년대 북한여성의 현실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의 슈퍼우먼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마당에 나가 하루 종일 장사하고 식량을 구해 가족을 먹이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혼자 다 감당하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북한당국도 여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비록 오늘은 남보다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난속에 가정살림, 나라살림을 떠메고나가지만 우리 녀성들은 어느 나라 녀성들보다 머리를 높이

---

48) 저자 미표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를 따라배우자. 홍두산 밀영에서 맞은 음력설,” 『조선녀성』, 2002년 1월호, 27쪽.

49) 저자 미표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를 따라배우자. 녀성들의 자어로운 스승이 되시어,” 『조선녀성』, 2006년 9월호, 10쪽.

들고 최상의 존엄과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그 어느 시대 주인공들보다  
뒤편하고 긍지높다.<sup>50)</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숙을 “공산주의 혁명투사” 문구로 수식하  
던 관행은 2002년 1월부터 신문 지면에서 사라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시장  
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시장과 “공산주의” 공존이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했던 북한당국은 배급제를 근거 삼아 독재를 정당화했던 전략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sup>51)</sup>

#### 4) 제4단계(2012년~2017년)

제4단계에서 북한당국은 기존의 “항일의 여성영웅” 이미지를 유지  
하면서도 더 이상 김정숙을 “어머님”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제목에  
김정숙 이름을 드러내는 빈도 역시 제3단계보다 감소한 양상을 보인  
다. 김정숙의 세습권력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  
권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한 지 60년이 지난 김정숙  
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호명하는 일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  
일 사후에는 해마다 김정숙의 생일이 있는 12월호 지면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망 이후 그 추모와 김정숙  
생일 축하가 12월호에 함께 나오지만 기사의 분량과 순서에서 차이가  
난다. 김정일 추모 기사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예전에 최대  
8쪽에 이르렀던 김정숙 생일 기사는 고작 반쪽 분량의 글을 서너

---

50) 저자 미표기, “녀성해방의 위대한 은인,” 『조선녀성』, 2007년 7월호, 7쪽.

51) 북한당국은 2009년 헌법개정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지도사상에서 삭제하였다.



건 게재하고 따라 배우라는 직접적인 언설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북한당국이 김정숙보다 김정일을 중요하게 대우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김정일 사망과 함께 김정숙의 표상도 그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양상도 나타난다.

김정숙 표상의 등장이 김정일 권력승계와 맞물렸던 것처럼 김정일 사후에도 그 내용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일의 어머니 측면보다 김일성을 통해 김정숙을 회상하거나 “자애로운” 국모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류학을 떠나는 날 새 양복과 새 구두차림에 손에 트렁크를 든 전병호 동지는 김정숙동지 앞에 나섰다. 그 트렁크안에는 김정숙동지께서 품을 들여 마련하신 여러벌의 계절양복과 내의류들이 드렁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옷이 꼭 맞고 보기에 아주 좋다고, 멋쟁이 신사같다고 하시며 한동안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경위대시절을 잊지말고 공부를 잘 하라고, 류학을 마치면 꼭 자신께 먼저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전병호 동지는 끝내 걱정을 터뜨리어야 말했다. 이름없던 식민지 청년을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전사로 어엿하게 키워주시고 오늘은 나라의 억센 기동감이 되라고 친부모의 정으로 배움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가슴속에 꽉 차 넘치었다.<sup>52)</sup>

나는 그가 하루라도 잘먹고 잘 입고 마음편히 살았다면 이렇게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 (중략) 고결한 충정으로 한생을 사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가슴아픈 회고담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sup>53)</sup>

---

52) 본사기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3돐을 맞으며: 건국의 초행길에 남기신 어머니의 당부(1),” 『조선녀성』, 2012년 9월호, 15쪽.

53) 본사기자, “가슴아픈 회고담,” 『조선녀성』, 2017년 12월호, 5~6쪽.

깊은 추억에 잠기시여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중략) 김정숙 동지의 동상으로 향하시였다. 항일전의 나날처럼 변함없이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와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는 듯 위대한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sup>54)</sup>

북한당국은 김정일보다 주민들 평가가 좋은 김일성을 모방하여 김정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정숙은 김정일의 어머니보다 김일성의 아내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 이런 작업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이었던 2011년 12월호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생존 시기도 겹치지 않는 김정숙과 김정은을 정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새로운 언설을 내보낸 흔적도 나타난다.

한생을 다 바쳐 수령결사옹위를 조선혁명의 영원한 재보로, 혈통으로 빛내여주신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만년재보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위대한 친위전사로 영생하신다.<sup>55)</sup>

북한당국이 아직도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을 호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그 정치적 지위를 구축해 왔다. 그런데 생모 고영희는 부각시킬 수 없고 부인이 설주는 상징적 여성을 내세우려면 아직 너무 ‘이른’ 측면이 있다. 물론 각종 국제무대에서 이설주를 동반하여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만큼 앞으로 그녀가 모범여성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

54) 본사기자, “친위전사를 잊지 못하시여,” 『조선녀성』, 2011년 12월호, 6쪽.

55) 최영옥, “친위전사의 빛나는 생애,” 『조선녀성』, 2011년 12월호, 17쪽.

2019년 오늘날 북한여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깨인” 상태라는 점에서 이설주 이상화 작업은 김정숙 사례와 또 다른 과제라 하겠다. 오늘날 북한당국은 너무 ‘이른’ 이설주와 지나치게 ‘늦은’ 김정숙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 5. 맺음말

북한당국은 분단 이후 줄곧 특정 인물을 적극 동원하여 “전체 인민이 마땅히 따라 배워야 할” 삶의 전형을 제시하고 모든 주민이 그 모범적 생활 모습을 그대로 따르도록 독려해 왔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이름을 동원하는 사례는 그 대표적 유형에 해당한다. 북한당국은 김정숙 표상을 통해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해 왔다. 이 글은 지난 60여 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과 수식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함으로써 시대별 여성 모범의 내용과 그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56년 이후 2017년에 이르는 61년 동안 『조선녀성』 기사 제목에 김정숙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를 북한 내 3대세습 정권의 변화에 맞추어 제1단계 이후 제4단계까지 구분한 뒤 그녀를 부르는 호칭과 수식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본 결과, 몇 가지 숨은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단계 이후 제4단계까지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북한 최고 권력자의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대세습의 중간 인물인 김정일이 후계

자로 떠오르는 시점이나 아버지 김일성의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는 시점, 아들 김정은에게 권좌를 넘겨주는 사망 시점 등은 모두 『조선녀성』 기사에서 그 생모인 김정숙의 호칭과 수식어 사용 관행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둘째,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그 생모인 김정숙에게 명예남성 지위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단계에서 김정숙을 부를 때 “동지·녀사·어머님” 호칭이 다 등장하고 그 사용 빈도 역시 비슷하지만 제2단계에 들어서면 동지라는 용어가 다른 표현을 압도한다. 제3단계 들어서면 “녀사” 호칭은 분석대상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sup>56)</sup> 마지막으로 제4단계 들어서면 “어머님” 호칭도 사라지고 동지라는 표현만 남는다. 결국 김정숙의 성별을 드러내는 표현은 사라지고 남편 김일성이나 아들 김정일처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인 동지라는 호칭만 남았다. 이런 현상은 김정일 집권 기간 동안 이른바 “백두산 3대 장군” 속에 김정숙을 포함해 왔던 북한당국의 의도를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셋째, 김정숙 이름을 수식하는 표현을 추적해 보면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시대적 여성상은 공산주의 투사에서 항일의 영웅으로 변화한다. 제1단계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영원히 빛나는 충성의 별·불요불굴의 혁명투사·혁명의 어머니” 등 다양한 수식어가 각 1회씩 등장하지만 제2단계에 들어서면 전형적 유형이 나타난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김정숙을 수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27회에 이른다. “주체형의 혁명투사의 귀감” 역시 6회 나와 김정숙을

---

56) 이 말은 단순히 1956년~2017년 기간에 『조선녀성』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김정숙 녀사”라는 표현이 제2단계를 끝으로 사라져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식하는 전형적 문구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제3단계에도 김정숙을 수식하는 전형적 문구가 두 개 나오지만 그 격차는 뚜렷하게 벌어진다. 전반기인 1998년~2001년 기간에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유형이 48회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나 2002년 1월 “항일의 녀성영웅” 유형이 등장한 이후에는 예전 표현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 제3단계 후반기인 2002년~2011년 기간에는 오로지 “항일의 녀성영웅” 하나만 김정숙의 수식어로 무려 364회 등장한다. 제4단계가 끝나는 2017년 12월까지 “항일의 녀성영웅” 유형은 유일한 수식어로 김정숙의 이름을 꾸며준다. 북한당국이 초창기에는 김정숙의 이름을 수식하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다가 “공산주의 혁명투사” 지위를 거쳐 “항일의 녀성영웅” 단계로 변화했던 것이라 하겠다.

넷째, 김정숙이 최고 지도자 지위에 오른 2012년 이후 북한당국은 김정숙 위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단계 중간 시점 2002년 1월에 김정숙 이름을 꾸미는 표현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유형 등장 이후 2017년 12월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3년 이후에 “항일의 녀성영웅” 등장 시점마다 그 상위 범주 수식어가 새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2013년~2014년에는 “●희세의 천출위인●” 아래 “항일의 녀성영웅” 표현이 등장한다. 2015년~2017년에 “☆백두산의 녀장군☆” 아래 “항일의 녀성영웅” 표현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 김정숙에게 적합한 호칭과 수식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숙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고심하는 흔적이 아닌가 싶다. 김정숙 출생 100주년인 2017년에 즈음하여 북한당국이 젊은 지도자 김정온과 그 할머니 김정숙의 북한 내 정치적·사회적 위치를 평가하고 정립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이후 2017년 기간 동안 『조선녀성』 잡지에 나오는 총 21,314건 기사 중에 김정숙의 이름이 제목에 등장하는 사례는 528건이다. 우상화의 상징인 여성은 사실상 김정숙이 유일하지만 그 등장비율은 전체의 2.48%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여성을 바라보는 북한당국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글은 북한의 『조선녀성』 잡지에 등장하는 김정숙 호칭과 수식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그 뒤에 숨은 의미구조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조선녀성』 자료에 결호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국내에서 『조선녀성』 잡지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하여 통일연구원 자료실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등 몇 군데 있다. 그러나 『조선녀성』, 1946년 9월 창간호 이후 결호 없이 완벽하게 보유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통일연구원 자료실 보유 자료를 교차 확인해 보았으나 1961년과 1968년, 1969년, 1970년, 1973년 1977년, 1978년에 나온 『조선녀성』 잡지는 한 권도 발견할 수 없었다. 1971년에는 5월호를 제외한 11권의 잡지가 결호이며 1972년에도 1월호 이후 7월호까지 결호로 나타난다. 결국 국내에서는 1968년 이후 10여 년 동안 『조선녀성』 자료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연구자가 자료를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실상 유일한 기관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1979년 이전에 나온 『조선녀성』 잡지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북한자료센터는 2004년 7월호를 제외하면 1979년 1월호 이후 『조선녀성』 자료를 온전하게 갖추어 놓았다. 그 이전 자료는 1946년 9월 창간호 이후 1950년 12월호까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필

름 보유 상태는 인쇄를 해도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결호가 많아 자료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1951년 1월호 이후 1978년 12월호 『조선여성』 자료는 북한자료센터에 전혀 없는 상황이다. 향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조선여성』 창간호 이후 결호 부분을 보완하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 하겠다.

■ 접수: 10월 23일 / 수정: 12월 8일 / 채택: 12월 10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조선여성』, 각 호.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_\_\_\_\_,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 2) 논문

권금상, “‘총대’ 서사의 젠더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18권 1호(2015).  
169~197쪽.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2016), 131~164쪽.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당국의 여성담론,”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2009), 153~185쪽.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여성학논집』, 제33권 1호(2016), 99~134쪽.  
이상숙, “‘진달래’ 이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2008), 183~201쪽.  
이승현, “김일성, 김정일의 상징정치: 구호와 상징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2012), 77~108쪽.  
정유석·곽은경,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2015), 156~224쪽.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조현수, “상징과 정치: 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상징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2010), 193~216쪽.

진순애, “2000년도 북한 시에 나타난 여성상,” 『북한학연구』, 제7권 2호(2011), 203~232쪽.

하승희,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음악정치 양상: “로동신문” 1면 악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2015), 232~261쪽.

### 3. 국외 자료

#### 1) 논문

Heisch, Allison. “Queen Elizabeth I and the Persistence of Patriarchy,” *Feminist Review*, Vol.4(1980), pp.45~56.

Analysis of the Appearance of  
the Name ‘Kim Jong-suk’  
in the Women’s Magazine *Joseon Nyeoseong*

Kim, Seok-Hyang (Ewha Womans University)

Park, Min-Ju (Ul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North Korean society places special meaning on the name Kim Jong-suk, who is Kim Jong-il’s birth mother. Before the division of Korea, ‘Kim Jong-suk’ was simply an average Korean girl’s name. Afterward, however, in North Korea the name became one that holds special meaning and symbolizes much more than the average female name. What was the North Korean regime’s purpose of placing such meaning behind a name? What message were they trying to send, and to whom were they directing said message? This article seeks answers to such questions. Through a study of numerous articles that mention Kim Jong-suk’s name in North Korea’s *Joseon Nyeoseong* [The Women of Korea] magazine between the years 1956 and 2016, I analyze and uncover the impact and implications that Kim Jong-suk had on North Korean society. First, the gradual change in her status since 1956 holds

great significance as it reveals much about the role of power within the regime. Second, when Kim Jong-il held power, he attempted to give honorary male status to his mother. Third, analysis show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hanged the story and meaning of Kim Jong-suk from that of a communist fighter to an anti-Japanese hero during that time. Presently, under the supreme leadership of Kim Jong-un, the government appears concerned with reevaluating how to portray her role in North Korean history. Their reexamination has become particularly more acute since 2017, as it marks the 100-year anniversary of Kim Jong-suk's birth.

Keywords: Kim Jong-suk idolization, Kim Jong-suk's name, 100-year anniversary of Kim Jong-suk's birth, Kim Jong-suk as a pseudo man, *Joseon Nyeoseong*